

Q6. 대학 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뽑자면?

A6. 대학 다니면서 해보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전면 중단됐지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 몰입감 등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지만 교환학생 활동을 해봐야 한다. 외국 학생들의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 좋을 것이다. 현장학습 활동에 대한 기회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체험학습과 인턴십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 역시 하면 어떨까 싶다.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혼자 고립돼 살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이나 국가나 단독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연대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Q7. 코로나 19가 도래한 상황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학업에 치중할 시간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7.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을 디자인 씽킹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설계하는 능력과 문제 중심적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의 디자인 씽킹이다. 이를 통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 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보자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독서를 많이 하며 지금의 내 문제점을 파악하

고 체계적으로 분석 창조할 필요가 있다.

간담회를 마치고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남우석(철학 2018) 회장은 "신입생 위로 차원에서 진행된 간담회가 학생과의 소통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며 "다소 형식적인 행사였던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님과 학생회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충분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공개적으로 학교의 중요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은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총학생회 참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대한 논의 없이 날짜가 정해졌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사전에 구글폼을 통해 안건을 선별했는데, 정제된 내용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 총장은 "신입생과 2학년 학생들을 보며 과연 대학의 전제가 무엇인지, 대학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 같다"며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사유하는 인간이 된다면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학교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생들이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사는 자유인으로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바라고 총장 또한 앞으로의 초연결 시대에 여러분들과 소통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간호대학원 개원식이 개최됐다.

(사진=커뮤니케이션 센터 제공)

간호대학원 첫 입학생 맞이했다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간호대학원이 개원 후 첫 입학생 17명을 맞이했다. 간호대학원은 사회변화에 따른 전문 간호 수요에 대응해 상급 간호실무 전문 기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이다.

일반대학원 간호학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인 우리학교는 특수대학원인 간호대학원 설립으로 이론·실

무 전문가를 모두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일반대학원 간호전공이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한 간호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간호대학원은 전문가적 간호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폭넓은 기술을 지닌 전문가 양성이 목표다.

간호대학원은 전문간호사 전공(노인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전공)과 임상간호전문가 전공을 운영한다.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이면서 10년 내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다. 현직에 종사 중인 지원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수업은 저녁 시간으로 개설됐다. 졸업생에게는 간호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노인전문 과정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 노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해 노인의 질병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전문 과정은 현대인의 스트레스에 대비하기 위해 개설됐다. 현대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 삶의 질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대학원은 추후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감염전문, 중환자전문 등 추가 전공 개설을 검토 중이다.

간호대학원장 석소현 교수는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의료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혁신적인 대학원이 필요했다"며 개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간호대학원에서 전문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시급한 상황과 미래위험에 대응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2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 1) 2021-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0~3구간 소득분위 보유자
※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2)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장학수혜 가능

신청기간

2021.09.01.(수) ~ 10.03.(일) 24:00 [5주간]

신청방법

- Info21 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신청
▶ 2021-2학기 학업계획서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및 저장

※ Info21 시스템 MY PAGE → 계좌번호관리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필수

장학금 지급

2021.10.27.(수) 예정

300,000원(일시 지급)

※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